

---

# 사찰음식을 통해 자유를 성취하기

공동체 종목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따른 사찰음식의 변형 연구

---



서울대 인류학 박사 과정 이준용

2026. 05. 01.

# 1. 들어가며 : 내부 수행에서 외부 평가로 이동하는 사찰음식

[ 사찰음식과 관련 실천은 ...  
사찰 내부의 수행 전통을 넘어  
특정 **형식** 및 **장치**와 결합하면서  
경쟁과 평가의 장에서 재배치되었다 ]

- 요리경연 프로그램 출연과 국가무형유산 지정은 사찰음식을 새로운 **가시성**의 장으로 끌어올린다.
- **가시성**은 그것을 **평가 및 설명 가능한 형식**으로 번역한다.
- 연구질문은 “사찰음식이 본래 무엇인가”보다 “어떤 **장치**가 그것을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가”에 있다.



## 2-1. 이론 틀 : 수행성에서 수행적 인프라로

---

### ① 수행성 (performativity) - J. L. Austin

발화행위에 의한 현실 구성으로 출발하지만, 여기서는 더 넓게 확장된다.

말뿐 아니라 퍼포먼스 · 절차 · 공간 배치 · 분위기 · 기대까지 모든 조건이 함께 수행적 사건을 만든다.

재료나 조리법을 넘어 퍼포먼스 · 상처림 · 전통 서사 · 설명 양식을 통해 사찰음식이 수행적으로 구성된다.

### ② 인프라 (infrastructure) - B. Larkin

핵심은 특정 유산이나 보유 행위자가 아니라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형식과 관계의 배치다.

수행성은 개별 행위의 힘을 넘어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조건들의 배치, 곧 인프라로 이어진다.

불교 수행자도 인프라 외부의 독립적 주체가 아니라 인프라를 통해 감각하고 반응하는 매개적 존재다.

## 2-2. 이론 틀 : 내면의 자유에서 배치가 만드는 자유의 가능성으로

---

### ① 자유 (freedom)

이 글에서 자유는 불교의 형이상학적 자유(解脫, nirvana)와는 다르고, 내적 자기수양의 결과물이 아니다. 자유는 평가 지표 · 교환 관계 · 기대 · 욕망의 압력 속에서도 **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**이다. 수행은 어떤 조건이 어떻게 얽혀 **구속력**을 만들거나 풀리는지를 식별하고 재배치하는 실천으로 재정의된다.

### ② 연기 (緣起, dependent arising) - Buddha

연기는 **구속**과 **자유**에 관여하는 특정 조건들의 결합과 재배치를 드러내는 불교적 통찰이다. 연기론과 수행적 인프라는 모두 현실을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**조건들의 관계적 배치**로 본다. 연기의 원리를 반영하여 구성된 수행적 인프라를 **인드라망**이라고 부른다. (S 사찰 공동체의 사례)

### 3-1. 공동체 종목 국가무형유산 지정 : 발견이 아니라 구성

- 국가 문서는 사찰음식을 “불교 정신에 기초한 사찰 전승 음식”이라고 정의한다.
- ‘승려들의 일상적인 수행식’과 ‘발우공양’이라는 중심 이미지 및 표지와 연결한다.
- ‘공동체 종목’이라는 형식은 집단 전승이라는 틀을 부여하면서도 특정 형식을 표준으로 고정한다.
- 유산 지정은 중립적 ‘발견’이 아니라 공적 문서의 권위를 통해 전통을 읽는 방법을 재구성하는 수행적 행위다.

사찰음식,  
국가무형유산으로  
지정되었습니다

이 귀중한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겠습니다.

2025년 5월 19일

국가유산청  
Korea Heritage Service

대한불교  
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 
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

사찰음식

## 3-2. 공동체 종목 국가무형유산 지정 : 가치의 측정에서 **가치의 생산**으로

- 심사 기준은**  
전통의 내적 의미와 가치를 판별하기보다  
기획력 · 지역 연계 · 운영 역량 · 예산 현실성 같은  
**가시성 있는 항목**을 요구하며 재생산한다.
- ‘전문성(expertise)’ 또한  
특정 본질을 발견해내는 전문가만의 능력이 아니라  
**객체를 판정 가능한 언어로 번역해내는 형식**이다.
- 현장은 지표를 **내부 언어(“장엄”)**로 재번역하기도 하지만  
이 또한 여전히 **전경과 배경을 나누는 결과**를 낳을 수 있다.

### 3. 공모 심사 기준

가. 심사방법: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한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

- 심사위원: 내·외부 관계 전문가 5명(무형유산위원 등 외부전문가 포함)
- 평가기준에 따라 평균 80점 이상 사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- 합계점수가 동일한 단체가 2개 단체 이상일 경우에는 세부 평가내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단체를 선 순위자로 함

나.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 평가내용	배점
사업기획 우수성 (35점)	○ 국가무형유산 종목 선정 및 사업목적의 적절성	15
	○ 지역 내 전승지원 사업의 필요성	10
	○ 지역문화와 공동체종목의 연계성	10
사업내용 구체성 (45점)	○ 무형유산 강연·체험·답사·행사 등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	25
	○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절성	10
	○ 사업 홍보계획 수립의 적절성	10
지속가능성 (20점)	○ 전승공동체 참여도·협력관계 구축 및 전승 지속가능성	10
	○ 지역 내 전승공동체 환경조성	10
<b>합 계</b>		<b>100</b>
(가점)	○ 비활성화된 공동체종목 활용 사업 (제업, 온돌문화, 전통어로방식-어살, 인삼재배와 약용문화, 갯벌어로)	5

<b>사업내용</b>	○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을 활용한 지역 내 교육·체험·답사·행사 등 사업 ○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전승되고 있는 공동체종목의 무형유산 가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
<b>사업기간</b>	○ 2025년 3월 ~ 11월 - 사업추진 기간은 11월 이내 종료 및 사업비 정산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. 단, 사업 특성상 부득이한 사업일정(12월)의 경우 진흥원과 협의 후 조정
<b>지원규모</b>	○ 10개 기관(단체)별 30,000천원 상한
<b>지원범위</b>	○ 강사료, 홍보비, 인쇄비, 재료비, 대관 및 임차비, 행사 경비 등

### 3-3. 공동체 종목 국가무형유산 지정 : 원형이 아니라 대표 형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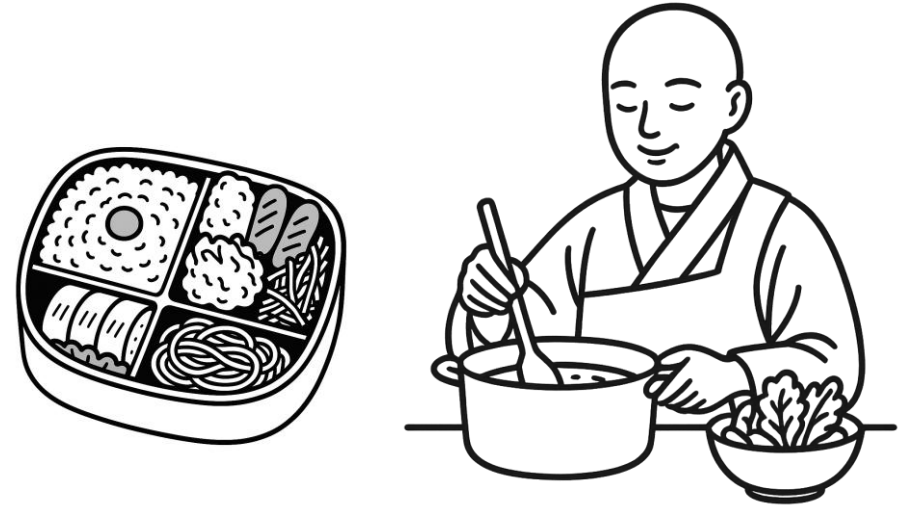
- 정통성 서사는 원형이 아니라 무엇을 전경에 돌지 선택하는 서사 장치다.
- 국가 문서는 사찰음식을 ‘이어져 온’ · ‘고유한’ · ‘차별화된’ · ‘창의적으로 재해석되는’의 표지와 연결한다.
- 문서의 수사는 공동체 종목의 유연성을 말하는 듯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이미지를 표준으로 만든다.
- 그 결과 발우공양 · 수행식 · 승려 주체는 전경화되고 산철의 식판식 공양 · 비공식적 변형 · 공양주는 배경화된다.
- 중요한 논의는 “무엇이 진짜인가”의 문제가 아니라 “무엇을 동원하여 대표 형식을 구성하는가”의 문제다.

「사찰음식」은 ▲ 불교 전래 이후 발전해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, ▲ ‘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’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,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하여 고유한 음식 문화를 형성하였다는 점, ▲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조리 방식과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고,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향토성을 반영하는 등 타 국가의 사찰음식과 차별화된다는 점, ▲ 현재에도 사찰 내에서 왕성히 전승되고 있으며, 전통적인 조리법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지정 가치를 인정받았다.

(국가유산청, 2025.5.19.)

### 3-4. 공동체 종목 국가무형유산 지정 : 변이 그리고 전경화 및 배경화, 대응 방향은?

- 전통은 원형으로서 전승되기보다는 변이 그리고 전경화 및 배경화를 통해 유전되어왔다.
- 불교의 음식 규범 및 실천은 끊임없이 변화했고, 심지어 초기에는 전면 채식주의를 표방하지도 않았으며,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며 재구성되어왔다.
- 사찰음식의 실제 노동과 숙련을 담당한 공양주 보살님들은 **대표 서사에서 (의도치 않게) 배제되고 배경화된다.**
- 원형 발견 및 보존보다 중요한 것은 **배경화된 변이들을 인정하고 기록하는 작업**이며, '적응적 해제(adaptive release)'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.



### 3-5. 공동체 종목 국가무형유산 지정 : 무엇을 먹는가에서 어떻게 관계 맺는가로

- 불교 음식 수행의 핵심은  
음식과 맺는 관계 양상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.
- 붓다가 문제 삼은 것은 음식을 구성하는 재료가 아니라  
음식이 욕망과 구속의 대상으로 배치되는 양상이다.
- 음식은 비인간 객체를 넘어 인간과 구분할 수 없이  
감각 · 반응 · 기억 · 평가 · 기대와 얽힌 준객체다.
- 식사 과정에 혐오 반응을 결합하는 ‘염식상 수행’은  
음식의 구속력을 약화하는 메타화용적 훈련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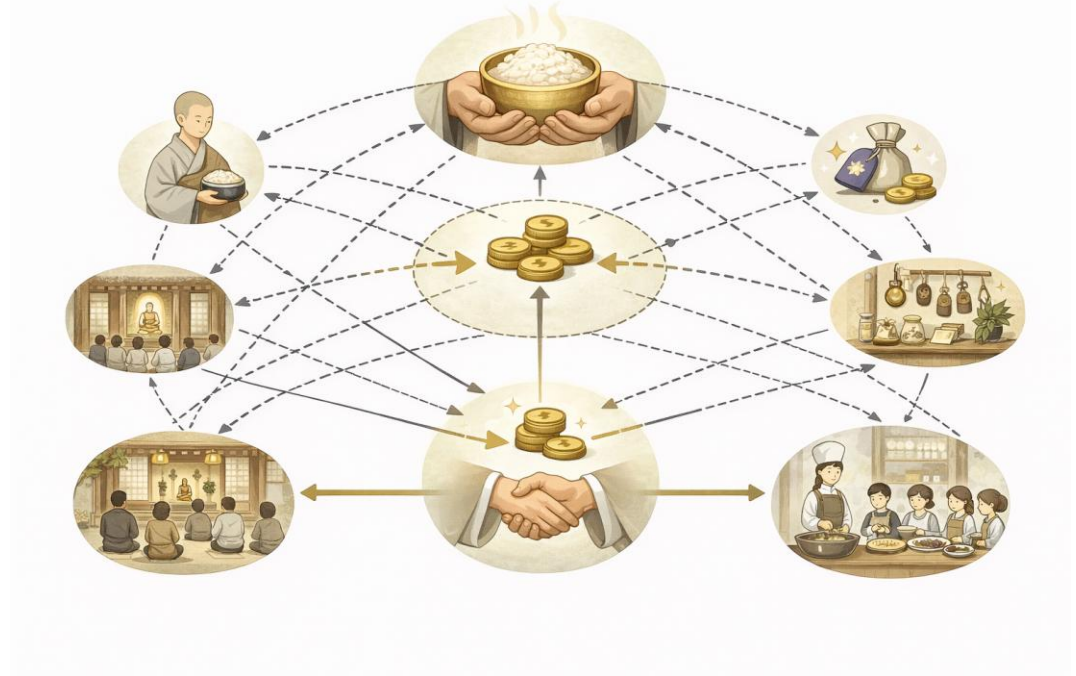
## 4-1. 상품화 : 전통의 훼손이 아니라 번역

- 전통은 구성된 결과물이며, 시장은 **전통의 외부**가 아니다.
- 시장은 가격 · 브랜드 · 평판 · 사용자 경험 등의 **번역 장치들이 얽혀 만드는 구성물**이다.
- 메뉴판 · 포장지 · 후기 · 예약 시스템 등의 장치들은 사찰음식을 소비 및 경험 가능한 상품으로 재구성한다.
- 상품화는 전통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건이 아니라 사찰음식을 구성하고 유통하는 기존 양상이 **시장 장치들과의 결합으로 재구성되는 과정**이므로, 어떤 장치가 어떤 관계를 구성해내는가를 주목해야 한다.



## 4-2. 상품화 : 탁발의 직접 대면 증여에서 간접화되고 다양화된 관계로

- 상품화의 핵심 변화는 음식 자체보다 불교식 증여인 ‘보시’가 이루어지는 양상 변화에 있다.
- 보시는 탁발 제도의 공식 폐지 이후 음식이라는 실존적 자원의 직접 대면 증여를 넘어 기도 참여 · 기념품 구매 · 체험 참가비 등 다양한 장면에서 (화폐 등) 교환이 용이한 물품의 간접적 증여로 이동한다.
- 여기서 핵심은 전통/시장, 증여/교환의 도덕적 대립이 아니라 전통/시장 장치들이 복잡하게 얽혀 구성된 인프라에서 어떤 관계가 구속을 늘리고 어떤 관계가 자유를 여는가다.



## 4-3. 상품화 : S 사찰 공동체의 공동-상품화와 공적 순환 사례

- 대안은 시장을 거부하면서 전통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고, 상품의 관계와 흐름을 공동체로 환류시키는 데 있다.
- S 사찰 공동체와 사업체는 전통/시장 장치를 혼용하면서 사적 소유와 전경화를 약화하는 대안적 인프라를 실험한다.
- 공양간은 출가자와 재가자가 수평성을 실현하는 장으로, 증여자와 상급자의 사적 표지는 반복적으로 제거된다.
- 농장 - 공양간 - 삶은 인드라마의 공적 순환 구조를 이루고, 상품화에 공동 참여하면서 그 결과를 공동체로 환류시키며, 상관적 관계는 반복적으로 조건적 관계로 되돌아온다.



## 5. 나가며

---

1. 이 연구는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화와 상품화가 전통을 **보존**하거나 **훼손**하는 사건이 아니라 전통의 의미, 대표 형식, 그리고 자유를 가능하게 하거나 제약하는 인프라를 **수행적으로 재구성**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.
2. 사찰음식이라는 유산화는 특정 형식과 주체를 **전경화**하고 변이를 **배경화**할 수 있으므로, **선택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**하고 **적응적으로 해제**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.
3. 상품화의 결과는 **사적 축적의 강화**로 이어질 수도 있고 **공적 순환의 회복**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, 전통/시장·증여/교환의 **도덕적 논의**를 넘어 **각 장치들의 적절한 재배치**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.
4. 사찰음식의 향방은 결국 그것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인프라 배치가 **구속을 강화**하는지 혹은 **자유**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지에 달려 있다.

---

**감사합니다**

---